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장익 주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스님과 주교님의 만남이 길었기에 스님의 입적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었을까. 스님의 입적에 대한 주교님의 말씀에는 스님을 보내는 당신의 감정이 묻어있었다. 법정스님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 먼 길을 나선 사진장이에게 이 말씀은 스님을 이해하는 데 두고두고 새겨야 할 말씀으로 남았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나 죽으면 거창한 다비식이나 화장 의식을 지르지 마라. 입던 승복 그대로 입혀서 즐겨 놀던 대나무 침상에 누워 그대로 화장하라. 사리 따위를 수습하려 들지 마라. 부처님 진신 사리는 어디 있는가? 진짜 법신 사리는 부처님 가르침 바로 그것이다.”

스님은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단출하게 ‘비구 법정比丘法頂’ 위패 하나 앞세우고 불에 드셨다.
“다비할 때는 못 가고 불교다비로 다비식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혼자서. (그때 심정을) 뭐라고 말로 하라고 하면 말 못 하겠네요. 뭐라고, 어떻게, ‘그냥 슬프다.’는 얘기도 아니구요. ‘그냥 섭섭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뭐라고 말로 못 하겠네요. 그걸 ‘슬됐다’ 무슨 뭐 ‘섭섭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참 뭐라고 해야 할 지. 참 그랬어요. 여러 날.”

단풍이 곱게 물든 시월 중순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오후. 전 천주교 춘천교구장 장익 주교(78)는 법정 스님 입적을 바라본 느낌을 묻는 나그네들에게 말씀했다.

처음부터 벽이 없었으니

“그냥 제 개인 소견인지 모릅니다만, 천주교 측에서 불 때 불교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교리나 관념 얘기가 아니고, 양쪽이 다 수행이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재가자들지 출가자들. 또 예불뿐 아니라 기도를 하고, 양쪽이 다. 또 경經, 경전이 있고, 세속 인연을 끊고 버리고 떠나서 사는 공동생활이 있거든요. 그냥 살 자체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단단 말이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차이를 먼저 떠올리는 데, 이 어른 남다르다. 단지 다를 뿐인데도 ‘틀렸대!’고 하는 현실에서, 다름이 닮음과 한 뿌리라고 풀어놓는다.

“법정 스님이 신념을 가지고 가끔 말씀하셨어요. ‘문화·사회·역사를 봤을 때 종교목적의 종단구성일 수는 없다’고. 그건 득도를 하기 위한 방편이지 목적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법정 스님은 ‘견성을 하면 그 순간 불자이길 그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불자다. 이런 걸 뛰어넘어 모든 종교가 참 삶을 찾아보자는. 궁극에 이르는 수단으로 애를 쓰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인 수 없지 않느냐?’며 아주 확신했어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법정 스님이나 장익 주교, ‘이 어른들한테는 처음부터 벽이 없었다. 그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뿐인데 모자라는 중생들이 ‘종교 벽을 넘어서 어쩌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낮이 달아올랐다.

죽음은 삶의 완결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일로 여기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다 내어주면 그게 곧 죽음’이죠. 삶의 완결, 완성이라고 할까요. 살다가 죽는 건 내 삶을 ‘다 하는 것’이죠. ‘적극 나서서 맞아야 할 게 죽음’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나 하나만 살려고 든다면 제대로 된 삶일 수 없고, 따라서 제대로 된 죽음이 될 수 없죠.”

살을 다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확’ 와 닿았다. 다 한다는 말은 온 힘을 다 쏟는다는 말씀 아닌가. 말씀

그대로 있는 힘을 다 쏟아 부어 이룬 열매가 곧 죽음. 그러니 죽음은 완결이다. 그 완성을 절정에서는 열반이라 이른다.

“이월 하순인가? 병원에 가서 보았어요. 실내가 덥고 건조하니, 법정 스님이 ‘이 집에 아이스크림 같은 건 없냐?’ 그러셔. 허허. 스님은 뭐 벌써 다 놓고, 담당하시더라고요. 별로 깊은 얘기 나누지 않고, 하시는 말씀 몇 마디 듣기만 하다가 나오는데 손을 꼭 잡으세요. 뼈밖에 없는 양반이 어떻게 아귀심이 센지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 오랫동안 장작 패던 실력이 남아서 기운이 센가?’ 그랬어요. 손을 꼭 쥐더니 안 놓으세요. ‘당신은 이제 작별이다. 아시는 거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법정 스님은 손을 꼭 쥐시고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까? 평소 애 하시던 말씀 그대로 당신은 ‘살 때 삶에 철저히 털끝만치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만큼, 죽음에 앞서 삶에 조금도 미련두지 않는다. 사는 것도 내 자신 일이고 죽음 또한 내 자신 일. 철저히 살았으니, 철저히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정성이 담긴 위대한 맹물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 동트기 직전에 일어나서 가장 처음 뜬 우물물, 용란龍卵이라고 부르는 정화수를 장독대에 올리고 빌 때, 그 바탕에 담긴 게 ‘정성’이었다며 시월 초 군인들과 나눴던 얘기를 꺼내면서, 종교 바탕에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극함이 자꾸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다. “장병들에게, ‘우리가 나 잘났다고 설쳐대지만 이제까지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어머니들 정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정성을 잃어버렸다. 올해가 초 조대장경을 파기 시작한 지 꼭 천 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선조들이 대장경을 팔 때 한자 파고 향 사르고 세 번 절하고, 또 한자 파고 향 사르고 세 번 절하고 또 봤던 것처럼 정성스러운 삶을 살아보자. 불공이란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화수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맹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값지고 희귀한 걸 신령 앞에 바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맹물이거든요. 평범하기 짝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하고 순수한. 그거 한 사발 떠놓고 빌고, 그거 한 사발 떠놓고 흔레를 올리고, 인생을 서로 약속하는 위대한 거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조대장경 말씀도 하시는데 인류사에 정말 위대한 예술작품, 작품뿐 아니고, 노래고 글이고 춤이고 종교성을 띠지 않은 게 없어요. 원시시대부터. 나보다 더 큰 거를, 내 나름으로 정성을 다해서 겸허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나는 사라져도 좋아. 내가 감히 해도 되나?’ 하는 마음으로, 겸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 위대한 작품들은 이름이 없어요. 드뭅니다.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한다는 게 중요했지. 아까 말씀한 정성이라는 속에도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안 돌아간 적 없어요

평소에 신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여쭙더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안 돌아간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삶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살아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는 만나서 거창한 얘기한 게 없고요 그냥 차나 마시면서 서로 편안한 얘기를 나눴어요. 아주 편했어요. 서로 그렇게 편했어요.

씀이죠. 뭐.”하고 간단한 말씀이 돌아온다. 그래도 그 가운데 특히 강조하시는 말씀 한 마디만 해달라고 떼를 썼더니.

“글쎄요. 특별히 한 거라고 없고요. 전 언제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안 돌아간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삶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안 돌아가고 삶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낸다는 것도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도 가끔 그런 글 쓰셨지만, 내가 밥술 떠도 벌써 거기에 생각도 못하는 해어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째와 정성이 서려있고, 우리 혼자서 그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진실 되게 살아낸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체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다 읽어 봐도 예수님이 당신 좋다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위해서, 남이 아니라 남으로 여기질 않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주시는 거지. 나한테 뭐 돌아오라고 한 거 아무 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네 잘못까지도 내 잘못으로 여길게. 아픔이나 죄과까지 내가 다 뒤집어줄게.’ 하셨단 말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히 모든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보러 가기 전 장익 주교 스승인 카를 라너Karl Rahner(1904-1984)가 지은 <일상>과 주교님이 직접 엮은 <폭력>을 읽었다. <일상>은 50쪽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이지만 말하고, 견고, 앓고, 보고, 웃고, 먹고, 자는 그야말로 일상에 담긴 뜻을 성찰할 책이다. 한 쪽씩 살펴보면 “...우리 일상 경험 영역에서 식사보다 신비로운 일은 아마 없으리라. 그것은 죽은 것이 산 것으로 화합이요. 어떤 존재물을 그 본성을 지킨 채, 더 차원 높고 더 넓은 다른 현실 안으로 포섭함이다.” <일상> 못지않게 알파란 책 <폭력>을 읽기 전 ‘대체 왜 폭력을 다루셨을까?’ 의아스러웠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폭력이 지닌 실체를 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셨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아, 폭력도 보셨어요? 전통(전두환 정권) 말기였어요. 힘으로만 할 하는 게 아닌데 싶어 도대체 폭력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동안 여기저기서 봤던 것들을 모아 엮어냈습니다. ‘폭력이라는 게 꼭 거짓하고 같이 다녀요. 열려있고 진실하다면 폭력을 휘두를 일이 없습니다. 그때 참 긴장된 시대 아닙니까? ‘집권자뿐 아니라 국민들도 일단 강해야 한다.’ (여섯째)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고, 민족이



이재복 지음 (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빛 살림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젓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 복부** 뱃살과 전정,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배장운동법!
-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저점에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고, 개인이고 강해야 뭐가 된다는 게 상당히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꼭 길인가? 큰 의문입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말씀에서 허허로움이 느껴진다. 얇은 책 두 권이 아주 큰 울림이었다고 말씀드리니.

“남들 훌륭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굵적굵적 옮긴 거지, 제 생각도 아닌데.”라고 말씀하면서 책을 한보따리 건네주신다. 그 가운데 나그네는 주교께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 리플레르그님이 쓴 책 <개으름의 찬양>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다. 한 쪽씩 살짝 엿보면, “우리 삶이 제대로 사랑다우려면 -마냥 한가롭기만 해야 할 것은 없지만- 거기에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하기가 일을 찬양할 수도 있겠습니까만, 일이나 힘은 역시 힘에서 비롯되고 힘에서 기뻐야 하는 법이고, 위대한 업적이나 크나큰 기쁨은 뛰면서 이루어질 수도 음미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에 경주를 거듭한다는 것은 산에 산을 포개살는 게 아니라 바람에 바람을 포개는 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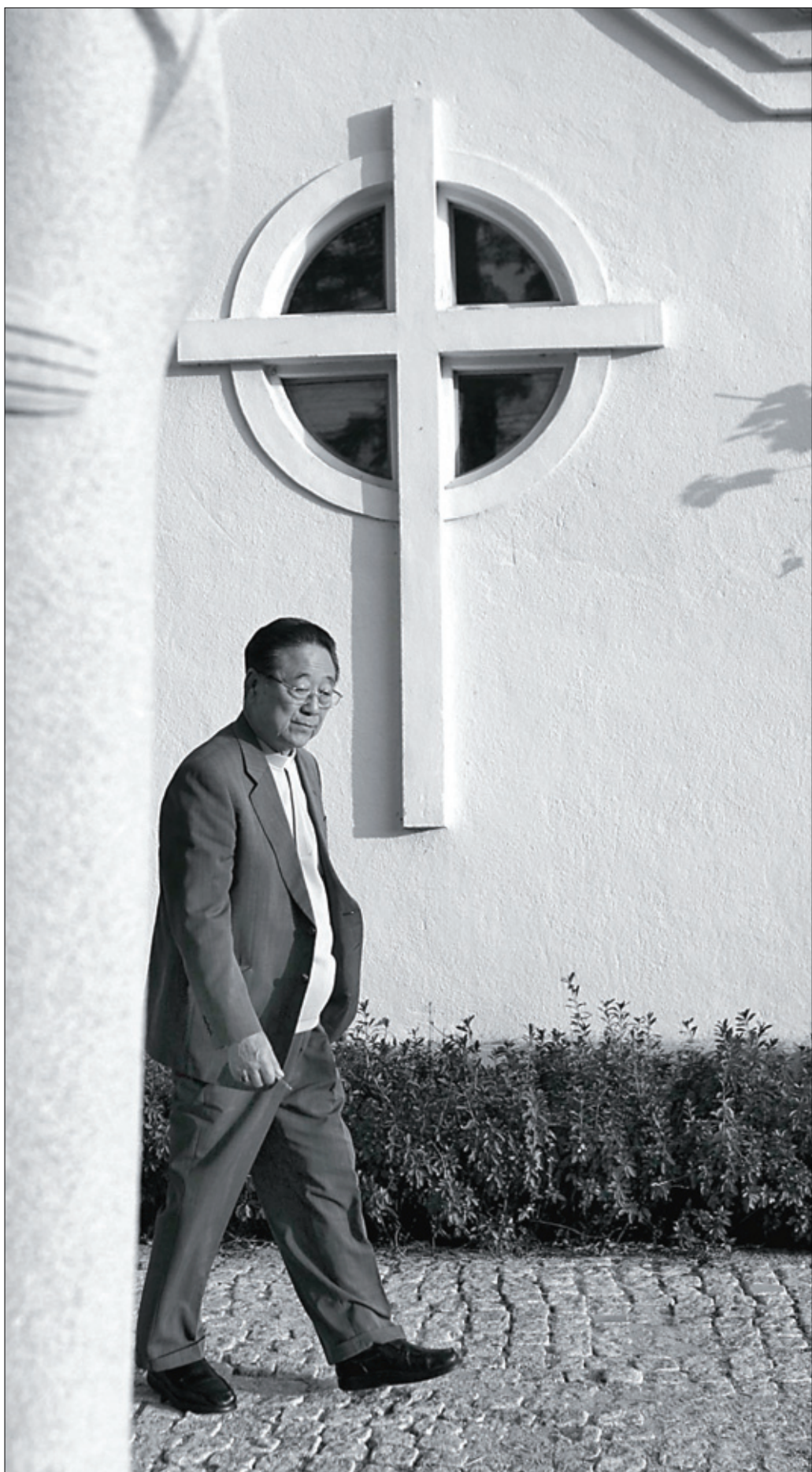
네 세상 어디쯤 있느냐

당신이 펴낸 책 가운데 법정 스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다는 <하씨담 가르침에 따른 인간의 길>은 19세기 중엽 동유럽에서 일어난 신비주의 색채가 짙은 종교운동 공동체인 ‘하씨담’ 가르침을 정리한 책이다. 책 첫머리 ‘마음 살림’에 나오는 ‘하씨담’ 소속이었던 북부 백리시아 랍비 ‘슈뇌르 살만’ 용이 반대파인 ‘밋나담’ 사람들 무고로 옥살이를 할 때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감옥 안에서 묵상에 잠겨있는 살만에게 간수장이 묻는다. “성서를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무슨 말이나 하면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면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 찾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다. 이에 대해 랍비는 “하느님은 사람 하나하나에게 내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고 답한다. 모퉁이 송연해질 만큼 준엄한 말씀이다. “네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 와 있느냐!” 법정 스님이 법석에서 골짜기 안을 훑었던 말씀이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세상 어디쯤 서 있을까?

친구는 내 부름에 대한 응답

법정 스님과 장의 주교, 언제 어떻게 만났을까? 70년 대 초 역경원에서 길을 번여 일을 하던 법정 스님은 봉은사 다래현에 머물렀다. 그즈음 처음 만났는데 딱히 첫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나, 법정 스님이 다래현에 오셨다는 기별이 있으면 가 뵙기도 하고, 안 계셔서 햇김을도 치고, 기다렸다 뵙기도 했다며 40년 전 일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저희는 뭐 만나서 거창한 얘기 한 게 없었고요. 그냥 차나 마시면서 서로 편안한 얘기를 나눴어요. 아주 편했어요. 처음부터, 제 편에서만 그랬는가? 몰라도 처음부터 오래 사귀었던 것처럼



‘사람을 알아보는’ 데에 종교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는 도구였을 것이다. 세상을 보는 깊은 성찰력과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두 분을 쉽게 ‘지기’로 맺어줬을 것 같다. 성당 벽면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있는듯 없는듯 이니 두 분도 각각의 종교를 이렇게 서로에게 보여줬을 것이다.

아주 편했어요. 서로 그렇게 편했어요.”

“이심전심以心傳心”, 저 유명한 카알라일과 에머슨도 처음 만나 삼십분 가량을 아무 말 않고 앉았다가 헤어지고는 재밌게 놀았다고 했다는데, 그저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법정 스님과 장의 주교, 이 두 어른, 4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넘어서 서로 바라보던 순정純正한 사이이다.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

는 법정 스님 말씀처럼.

‘겸양지덕謙讓之德’, 태산 같은 포부를 갖고 누운 풀처럼 낮추라고 했던가. 법정 스님이 어디에도 걸림 없는 바람 같다면, 장의 주교 이 어른, 달을 품어도 흔적 없는 호수처럼 넉넉하게 대상을 받아들이는 조선행자 ‘달항아리’ 같다.

글. 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력주 / 사진. 마음을 담은 사진쟁이 이종승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9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엔닌(圓仁)

“정오 무렵 서복풍이 불었다.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오후 2-4시 경 적산의 동쪽에 이르러 배를 정박시켰다. 서복풍이 세차게 불었다. 그 적산은 실로 암석이며 높이 솟아 있는 곳으로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이다. 산에는 절이 있어 그 이름은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이다. 본래 장보고가 처음 세운 것이다. 오랫동안 장전(莊田)을 갖고 있어 식량에 충당하고 있다. (하략) 김문경 역주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일본 천태종 개조 사이초(最澄)의 제자로서 교단을 부흥의 반열에 올려놓은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 839년 6월 7일의 기록이다. 5세기 법현의 <불국기>를 비롯, 7세기 현장의 <대당서역기>, 8세기 신라승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이 실크로드와 인도 순례의 행적을 남긴 위대한 기록이라면, 9세기 엔닌은 중국순례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의 현장과 시대상을 근접 촬영한 것 같은 귀중

력과 쿠카이(空海)에 의해 개창된 고야산 진언밀교의 발전이 천태종의 입지를 어렵게 한 시기였다. 이후 그는 법화일승의 가르침을 전국에 전파하고자 하는 스승을 모시고 다녔으며, 사이초 입적 15년 후 그의 나이 45세에 입당구법을 실천하게 된다.

순례 동안 천태는 물론 선, 밀교, 염불삼매, 범어학 등 불교의 다양한 세계를 배우고 체험하며, 만다라를 비롯 589부 802권의 불전을 일본에 가져왔다. 사리회, 부단염불회, 법화참법 등의 불사를 정착시켰고, 진언밀교의 동밀(東密)에 대해 천태의 태밀(台密)의 이론과 수행법을 발전시켰다. 여기에 법화삼매와 상행삼매의 제도를 더하여 수행체계를 확립했다. 상행삼매에는 당의 범조(范照)가 염불의 음조를 다섯 종류로 분류한 음악적인 염불인 5회(五會)염불을 도입해 성명법과(聲明梵唄)는 물론 천태정도의 기초를 놓았다. 이는 정명염불을 주장하는 중세의 순수정도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그는 천태종 최고 지주인 좌주(座主)의 3대 자리를 이어 받았다. 사후엔 자각대사(慈覺大師)의 시호를 받았다. 엔닌은 순례를 통해 불법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더욱 고양시키고,

45세에 입당구법 천태종 3대 좌주

한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 나오는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사원으로 신라와 당나라의 외교·교역의 중심지인 산동 반도의 신라방(新羅坊)에 속해 있었다. 엔닌은 여기에서 신라인의 도움으로 겨울을 보내고 1300여 km의 오대산 순례에 나선다.

동아시아 교류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를 제공한 이 기록을 일본학 전문가인 라이샤워(E. Reischauer)는 앞의 현장의 것과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합쳐 세계 3대 여행기로 봤다. 더구나 그는 엔닌의 기록을 통해 신라방을 당시 신라에 의한 대당 식민지로 인식했다. 당시 장보고의 해상세력이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인 셈이다. 이 순례행기는 엔닌이 두 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 견당선을 타고 838년 6월 중순 현재의 후쿠오카를 출발해 847년 12월 중순까지 약 9년 반 동안의 구법순례를 마치고 마침내 천태진을 거쳐 다시 같은 곳으로 귀국하는 동안 남긴 일기행식의 기록이다. 신라인들에 의한 해상무역 활동상을 시작으로 오대산의 찬란한 불교의 모습, 국제도시 장안의 쇠락하는 실상을 목격하고, 마지막으로 무종교의 외곽의 폐불사건을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순례의 막을 내린다.

엔닌은 15세에 사이초 문하에 출가해 누구보다도 스승의 뜻을 잘 받들었다. 23세에 구족계를 받고 30세부터 12년간 산문을 한 번도 나가지 않는 농산(籠山)의 청구생활을 지키며 수행에 전념했다. 당시 는 기존 세력이나 나라(奈良) 대사찰 승려들의 압

스승의 유업을 계승, 천태종을 대성시킨 것이다.

840년 엔닌은 만난 적이 없는 장보고에게 편지를 올렸다. 후쿠오카 지역 태수로부터 받은 서신을 배가 침몰되는 바람에 잃어버려 전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였다. 아마도 구법승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순례 중인 842년 일본은 신라인의 입국을 금지할 정도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됐지만 적산법화원을 통해 무사히 순례를 마칠 수 있었다. 대륙의 전진기지였던 이곳은 엔닌을 비롯해 동아시아 승려들의 구법과 수학의 통로이자 안식처였던 것이다. 이는 장보고의 해상루트를 해상무역 세력의 위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대사회의 불법의 유통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엔닌은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 참여한 자신과 주변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 후대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현대에 새롭게 정비된 적산법화원 전경.

Advertisement for 'Bytv' (현대칼라지빙공사) featuring a temple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regions.

Advertisement for 'Won-tong's DVD Special Sale' (원통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featuring a portrait of a monk and details about the DVD set.

Advertisement for 'Dalma's Side'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다) featuring a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Zen Questions and Answers from Korea'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featuring a portrait of a monk and book covers.